



무들이 부드러운 것에 넘어지는 그 의미 때문일까. 산은 한겨울이 지나면 알고 난 얼굴처럼 수척하다. 사아밭티어의 온 시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던 살인귀 앙골리마알라를 귀의시킨 것은 부처님의 불가사의한神通력이 아니었다. 위엄도 권위도 아니었다. 그것은 오로지 자비였다. 아무리 흉악무도한 살인귀라 할지라도 차별 없는 ㉠**훈훈한** 사랑 앞에서는 돌아오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바닷가의 조약돌을 그토록 동글고 예쁘게 만든 것은 무쇠로 된 정이 아니라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인 것을...

**6.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2008충북교행)**

- ① <복원미흡>
- ② 부드러움이 강함을 제압한다.
- ③ 유연성은 모든 사물을 감동하게 한다.
- ④ <복원비흡>
- ⑤ <복원미흡>

**7. 밑줄 친 ㉠의 ‘훈훈한’과 의미가 다른 것은? (2008충북교행)**

- ① 슬픔과 기쁨의 감정이 뒤섞여 내 마음이 훈훈하게 녹아내리는 기분이었다.
- ② 도와주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훈훈하게 전해졌다.
- ③ 진호의 선행이 사람들에게 훈훈한 미소를 짓게 하였다.
- ④ <복원미흡>
- ⑤ 훈훈한 봄별이 따사로웠다.

**8. 밑줄 친 말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 단어인 것은? (2008충북교행)**

상징어의 발달을 들 수 있다. 이는 주로 소리, 동작, 형태를 모사(模寫)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표현 수단 가운데의 하나이다. 상징어는 국어에 특히 발달되어 있고, 음상의 차이에 의해 다양하게 분화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음성상징어는 음성 상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에 접미사가 붙어 그 소리를 내는 사물이나 동물의 명칭을 나타내기도 하여 국어의 어휘를 더욱 풍성하게 한다. 예를 들면 ‘기러기, 개구리, 꾀꼬리, 귀뚜라미, 매미, 빠꾸기, 쓰르라미’와 같은 의성어에서 나온 명칭이나, ‘깜빡이, 누더기, 뽀짝이, 뽀죽이, 살살이’와 같은 의태어에서 나온 사물의 명칭이 그것이다.

- ① 염소      ② 송아지      ③ 당나귀      ④ 딸각발이      ⑤ 귀머거리

**9. 다음 구절과 관련있는 한자성어는? (2008충북교행)**

이러한 노작(勞作)의 결정체인 서적을 읽는다면, 저자의 장구한 기간의 체험이나 연구를 독자는 극히 짧은 시일에 섭취(攝取)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서적에서 얻은 지식이나 암시(暗示)에 의하여, 그 저자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새로운 지식을 터득하게 되는 일이 많다.

- ① 臥薪嘗膽      ② 四面楚歌      ③ 靑出於藍      ④ 日新又日新      ⑤ 甘香苦吐

**10. 다음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008충북교행)**

청산은 내뜻이오 녹수는 님의 정이  
 녹수 흘러간들 청산이야 변할손가  
 녹수도 청산을 못니져 우러 예어 가는고

- ① 청산은 변하지 않는 마음을, 녹수는 쉽게 변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 ② 유수가 흘러가는 소리를 울음으로 표현하였다.
- ③ 청산은 불편하다는 관습적 표현을 통해 나타내었다.

- ④ 청산이나 녹수 모두 서로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이별을 청산의 탈속적인 이미지로 나타내었다.

**11. 다음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2008충북교행)**

生死 길은  
 예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앞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

- ① 죽은 누이를 추모하는 노래이다.
- ② 삼국유사에 전하고 일부는 시조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 ③ 향찰로 표기되었다
- ④ 비탄 - 허망 - 초극의 순서로 전개되었다.
- ⑤ 효, 우애 등 숭고한 유교적 세계관을 반영하였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8충북교행)**

인간 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것은 아주 오래 전의 일이었다.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시장을 통한 상품 거래가 이루어졌었다. 하지만 시장이 형성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런 시장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은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동시에 갖게 되는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용 가치가 상품을 실제 사용할 때 실현되는 반면 상품의 교환 가치는 화폐를 통해 표현되는 가격으로 나타난다.

상품 생산자, 즉 판매자는 이 화폐를 얻기 위해 자신의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다. 하지만 생산자가 만들어 낸 상품이 시장에 들어서서 다른 상품이나 화폐와 관계를 맺게 되면, 이제 그 상품은 주인에게 복종하기를 멈추고 자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상품은 그것을 만들어 낸 생산자의 분신이지만, 시장 안에서는 상품이 곧 독자적인 인격체가 된다.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상품이 주체가 된다. 또한 사람들이 상품들을 생산하여 교환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경제 법칙을 만들어 냈지만, 이제 거꾸로 상품들은 인간의 손아귀를 떠나 시장 법칙에 따라 교환된다. 이런 시장 법칙의 지배 아래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상품과 상품, 상품과 화폐 등등의 사물과 사물 간의 관계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된다. 이처럼 시장 법칙이나 상품은 인간에 의해 산출된 것이지만, 이제 거꾸로 시장 법칙이나 상품이 인간을 지배하게 된다. 이때 인간들 간의 관계가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런데 소외된 현대인들은 시장 사회에 살면서 시장 사회의 원칙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장의 원리에 순응한다. 심지어 현대인은 그 자신이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돈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현대인은 자신을 철저히 상품화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시장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이 먼저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상품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외된 세계에서는 사람들 간의 고립과 상호 배제가 생활의 전 영역을 물들이게 되고 사람과 사물들 간의 유기적 관계가 점차 사라지게 된다. 상품 교환을 주도하는 시장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소비하는 물건들의 고유한 특성이나 내력 등에 대해서는 점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어떤 물건이 누구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등은 이제 우리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유통되어 소비

되는 대상은 이제 그것의 고유한 내용적 측면이 아니라 얼마만큼의 화폐로 판매되고 구입될 수 있는  
지가 관심의 대상이 될 뿐이다.

12. 위 글의 글쓰기가 비판할 만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2008충북교행)

- ① 매번 가장 최근에 출시된 전자 제품을 사서 사용해 보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
- ② 성향 외과에서 큰 돈을 들여 자신의 신체를 성형한 뒤 연예계로 진출하려고 생각 중인 사람
- ③ 몇 달 동안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여 모은 돈으로 유명 브랜드의 신발을 사고 좋아하는 사람
- ④ 어렸을 적 유행했던 장난감들을 모아서 깨끗이 손질하여 보관하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는 사람
- ⑤ 사려는 물건이 별로 없으면서도 매일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새로 나온 물건을 구경하는 사람

13. 다음 <보기>의 밑줄 친 ㉠에 해당하는 높임 표현이 드러난 문장은?  
(2008충북교행)

<보  
기>

㉠압존법은 말하는 이에게는 윗사람이지만 듣는 이보  
다는 아랫사람인 제3자에 대해서 말할 때 존대를 하  
지 않는 것이다.

- ① 오 선생님께서 이것을 김 선생님께 갖다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② 현수야, 고모가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 달라고 하셔어.
- ③ 옆집 할머니는 연세는 많으시지만, 항상 활기가 넘치신다.
- ④ 내가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를 차타는 곳까지 모셔다 드리겠다.
- ⑤ 할아버지, 큰아버지가 작은 아버지에게 그 일을 부탁했어요.

14. 밑줄 친 단어 중 <보기>의 '확장된 의미'로 쓰이지 않은 것은?

(2008충북교행)

<보  
기>

'짧다'는 본래 '끈이 짧다'에서처럼 '두 끝 사이가  
가깝다'는 구체적인 상태를 가리키지만, 때로는 그  
의미가 확장되어 '입이 짧다'에서처럼 추상적인 상태  
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다의어는 기본적 의미와 확  
장된 의미를 지닌 단어이다.

- ① 내가 한 번만 눈 감아 줄 테니 어서 도망가거라.
- ② 그 사람은 발이 넓어서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다.
- ③ 코 고는 소리가 요란해서 나는 한 숨도 자지 못했다.
- ④ 그는 범죄 조직에서 손을 씻고 착실히 살아가고 있다.
- 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꽤 씁해서 뽕뽕 이가 갈린다.

[15-16]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08충북교행)

(가) 폭포는 곧은 절벽(絶壁)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規定)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向)하여 떨어진다든 의미(意味)도 없이  
계절(季節)과 주야(晝夜)를 가리지 않고  
고매(高邁)한 정신(精神)처럼 설사이없이 떨어진다.

금잔화(金盞花)도 인가(人家)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瀑布)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이다.  
곧은 소리는 곧은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醉)할 순간(瞬間)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懶惰)와 안정(安定)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幅)도 없이  
떨어진다.

(나) 꺾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꺾데기는 가라.

꺾데기는 가라.  
동학년(東學年) 공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꺾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꺾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꺾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흥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1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2008충북교행)

- |                   |             |
|-------------------|-------------|
| ① 반복적 운율          | ② 상징적 표현 수법 |
| ③ 통일에 대한 의지       | ④ 현실 참여적 자세 |
| ⑤ 개인의 정서를 나타낸 서정시 |             |



